

# 언택트 시대 느슨한 연대의 정치화\*

— 타자의 정치적 연대를 위하여 —

한 주 희\*\*

• 요 약 •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타자와의 연대를 확립하기 위해서 느슨한 연대를 기반으로 정치적 연대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마크 그라노베티(Mark Granovetter)가 강조하는 느슨한 연대의 힘(The Strength of Weak Ties)을 알아보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타자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느슨한 연대는 자유로운 의사 선택과 관계의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이 강조되고, 사회적 공감과 공동 목표의 집합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느슨한 연대는 상호 간 정보공유를 통한 삶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느슨한 연대가 정치적 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합적 동기가 필요한데, 감정은 집합적 행동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발시키고, 느슨한 연대에서 정치적 연대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집합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공간이 필요하다. 이는 집합의 정체성과 집단행동을 만들어 내고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하는 구심적인 힘을 구축하여 정치참여와 동원의 기능으로 정치적 연대를 이끈다. 끝으로 정치적 연대는 공정한 협력의 가치와 합리성을 기초로 할 때 그 정당성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타자의 권리와 정책을 보장받게 된다.

주제어 : 언택트 시대, 타자, 느슨한 연대, 정치적 연대, 감정의 공유, 정치 공간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인간은 오롯이 혼자서 모든 삶을 영위하지는 못한다. 인간이 지닌 불안정성 때문에 공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 051403).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생이라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이 홀로 지내는 것보다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사회는 발전과 진화를 해왔다. 우리 사회도 강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사회가 지속하여 왔지만,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근대적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어 왔으며, 개인의 자율성이 중시되는 사회로 변모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개인들의 권리 의식은 강화되고 사회의 이해관계 충돌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결속력은 느슨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사회에서 강력한 규범의식과 종교적 공동체로 구성원을 결속시키던 연대의식은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새로운 공동체 의식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자살률과 같은 사회문제를 초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연대의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코로나 19로 우리의 일상적 삶은 언택트로 변해가고 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갈망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부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타자(他者)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사회로부터의 소외된 타자는 더욱 큰 단절과 배제의 나락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대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무질서와 혼란, 소외와 불평등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언택트로 인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회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정치화 과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아놀드 겔렌(Arnold Gehlen)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연약하고, 자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 유기체는 필연적으로 타자와의 연대를 추구하게 되며,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주장한다.<sup>1)</sup> 사회의 타자의 문제는 자발적 연대의 구축을 통해 정치적 연대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지만, 정치적 연대는 점진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때 좀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연대의 제시로서 느슨한 연대는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한다. 오늘날 개인화가 집중된 사회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전근대적인 강한 연대만을 강조할 수 없다. 이를 침해하지 않는 연대성은 타자의 배제와 폐쇄주의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현대 사회에 적합한 연대의 유형으로서 정치화의 기능으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다.<sup>2)</sup> 따라서 본 연구는 극단의 정치적 연대를 인위적으로 구축하여 사회의 결속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친목과 관심사로 서로 연

1) Arnold Gehlen, *Der Mensch: Seine natur und seine Stellung in der welt*, 1955, Ha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p.177, 재인용.

2) 강수택, “사회적 연대 담론의 구조와 시민문화”, 『한국사회학』 40(6), 한국사회학회, 2006, p.32.

대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폭발할 기제가 있으면 정치적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느슨한 연대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느슨한 연대는 오늘날 요구되는 사회관계를 대변하는 용어로서 언택트 사회에서 적합한 유형의 연대를 말하고 있지만, 어떤 일련의 노력을 통하여 정치화의 구상을 이뤄낼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가속화된 언택트 사회에서 발생하는 비대면의 일상화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적 타자의 문제 및 개인화 현상에 따른 불안감과 불안정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느슨한 연대를 통한 타자의 정치적 연대를 찾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타자의 결집을 위한 중간적 매개로서 마크 그라노베터(Mark Granovetter)가 강조하는 사회관계인 느슨한 연대의 힘(The Strength of Weak Ties), 느슨한 연대가 무엇인지 주목하고자 한다.<sup>3)</sup>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타자’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느슨한 연대에서 타자는 누구인가? 타자의 개념은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그 의미와 대상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타자는 사전적으로 다른 어떤 것, 자기 이외의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광범위하고 모호한 타자의 개념을 어떻게 느슨한 연대와 정치적 연대의 주체로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대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타자의 인식도 함께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대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결속을 뜻하는 것으로서 결속을 위한 행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행위자는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타자’가 되는 것이며, 연대의 유형이나 성격에 따라서 타자의 행위자(주체)도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느슨한 연대와 정치적 연대의 행위자(주체)로서 타자의 규정은 쉽게 풀이될 수 있겠다. 예컨대 라이너 졸(Rainer Zoll)에 따르면 연대는 오래된 연대와 새로운 연대를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오래된 연대는 거의 노동연대처럼 동질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연대유형이고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공동체에서의 사회적 결합이다. 이에 비해 새로운 연대는 같은 집단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 즉 타자와 함께하는 연대유형을 말한다.<sup>4)</sup>

3) 마크 그라노베터의 논문 “The Strength of Weak Ties”에서 ‘Weak Ties’는 약한 연결, 느슨한 연결 등으로 해석될 수 있고, 다수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해석되나, 본 연구에서는 느슨한 연대로 표기한다. 2019년 출판된 김용섭의 『라이프 트렌드 2020, 느슨한 연대』에서 이를 ‘Weak Ties’로 표기되면서 이후의 많은 연구에서도 느슨한 연대로 인용되고 있다. Ties에 대한 해석으로 ‘연대’보다는 ‘연결’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으나, ‘연대’라고 해석되기도 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마크 그라노베터의 연구에서 ‘Ties’를 연대로 해석하고, 영문 표기도 느슨한 연대는 ‘Weak Ties’로 표기한다. 단, 정치적 연대의 표기는 ‘Political Solidarity’로 한다.

4) 강수택, 『연대의 억압과 시장화를 넘어』, 진주: 경상대학교출판부, 2016, p.33.

연대의 유형에 따라 타자는 동일성과 차이를 통한 구분을 통해 타자의 대상을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2016년에 6월 성소수자들은 퀴어문화축제로 광장에 결속했고, 같은 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는 다양한 시민들이 광장에 결속했다. 성소수자들의 연대는 동질적 집단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차별금지)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공동의 목표(박근혜 대통령 탄핵)를 위해 다양하고 차이를 가진 시민들의 연대였다. 따라서 타자는 연대에 참여하는 행위자 혹은 주체자의 성격이 동질성에 따른 것이냐, 혹은 차이의 경계를 넘어서 개별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전제로 형성되는 통합과 연대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연대의 행위자(주체)는 동질성 여부로서 이해할 수 있는데, 느슨한 연대는 개인화, 이질화, 원자화 등이 진행되는 사회에서 감정, 취향, 관심사 등으로 구성원들의 간의 차이를 전제로 동질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타자와의 연대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발생한다. 타자는 사회의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알로이스 한(Alois Hahn)은 동질적 집단과 타자가 본래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사점과 차이의 총합함이 분리되거나 생산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한다.<sup>5)</sup> 타자는 사회의 구속적 방식이 아니라 그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늘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타자의 연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로서 행위자이면서 사회로부터의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이중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을 말하는 것이다. 나아가 라이너 출은 시민연대, 지구적 연대, 인간적 연대 등은 특정한 계급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超)계급적 연대로 이런 개방적인 연대를 현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연대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sup>6)</sup> 즉 새로운 연대는 특정한 계급적 경계를 넘어서는 연대 뿐 아니라 성별, 인종 같은 다른 사회적 경계를 넘어 타자와 함께하는 연대가 해당된다.<sup>7)</sup>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연대는 사회적 경계를 넘고 어려운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뚜렷한 공동의 목적을 내재화하여 실천적이고 투쟁적으로 발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자의 정치적 연대는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타자는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집단 내부의 구성원들이 연대와 결속을 통해 외부인이나 다른 집단과 적대적 관계를 강화하게 하는 정치화의 과정 속에서 행위자(주체)가 유연한 변모가 가능하다. 즉 타자는 결속이라는 연대의 목적성에 따라 타자의 유형이 달라진다. 대체로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저소득의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 성적 소수자 등)가 그 대상이 될 것이며, 연대를 형

5) 라이너 출, 최성환 역, 『연대란 무엇인가?』, 파주: 한울, 2008, p.184.

6) 라이너 출, 위의 책, pp.21-22.

7) Ferdinand Lassle, *Arbeiterlesebuch und andere Studientexte*, edited by W.schäfer, Hambrug: Rowohlt, 1972, p.24, 46. 라살레(Ferdinand Lassalle)도 신분적 경계를 기준으로 이와 비슷하게 신분적 연대와 보편적 인간적 연대의 유형론을 제시했다.

성하는 목적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다. 지배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집단인 시민, 시민단체 등도 타자화가 된다. 실제적으로 사회적 타자에 대한 유형에 관한 지표는 정책대상의 집단으로서 그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지이다.<sup>8)</sup> 언택트 사회에서도 사회적 타자의 대상은 별반 다르지 않다. 언택트는 사회적 단절과 고립을 발생시킬 수 있는 비대면이라는 상황적 요소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타자는 단절과 고립으로부터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느슨한 연대의 정치화 과정을 위한 그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문헌 연구와 통계자료 등을 통해서 느슨한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연대의 모색 가능성을 밝힌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은 먼저 언택트 사회가 느슨한 연대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기능을 하고, 이런 환경에서 타자의 양상에 대해서 설명한다. 다음으로는 정치적 연대의 기반인 느슨한 연대의 등장과 특성을 통해서 알아보고, 느슨한 연대가 정치적 연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 II. 언택트 시대의 타자 이해

### 1. 느슨한 사회 결속력과 언택트 사회

2020년 코로나 19바이러스의 습격은 우리가 예견했던 언택트의 사회를 위한 첨단기술

8) 전영평,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연구 관점”, 『정부학연구』 제13권-제2호, 정부학연구소, 2007, pp.111~115. 타자와 관계 속에서 사회적 약자는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권력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적 차이 인종, 가치관, 종교, 도덕법 등의 차이, 한 전통내에서 용인하지 않은 문화풍토 성적소수자, 성매매여성, 미혼모 등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에 해당되며 혐오를 느끼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열악한 경제적 환경을 통해 차별과 배제의 인권침해를 겪는 것으로 노동자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타자는 상호 간 중첩적으로 작용한다. 소수자 유형은 아래와 같다.

		조직화 여부	
		집단화	비집단화
소수자 특징	신체적 소수자	유형 1(장애인)	유형 2 (HIV/AIDS 감염인, 한센인)
	권력적 소수자	유형 3 (탈북자)	유형 4 (양심적병역거부자)
	경제적 소수자	유형 5 (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	유형 6 (노숙자)
	문화적 소수자	유형 7 (성적소수자/일본군위안부)	유형 7 (이주배우자, 미혼모)

의 전면 도입 시기를 상당히 앞당기며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타격과 변화를 가져왔다. 언택트(Untact)는 ‘접촉하다’라는 의미의 ‘콘택트(contact)’에 부정적 의미인 ‘언(un)’을 합성한 단어이다.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는 외부와의 ‘연결(On)’을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일상의 활동이 제약을 받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sup>9)</sup>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필수적 모임을 예외로 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생존전략으로 비대면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었고 일상화가 되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물리적 거리 뿐 아니라 심리적 거리까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단절과 개인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개인화의 가중은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사회적 결속의 약화로 인한 단절은 사회적 타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의 갈등 및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압축적 근대화는 우리 사회를 관목할만한 경제성장과 성공적 민주화를 이끄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타자의 발생과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이러한 현상은 불가피하게 사회 결속력의 약화와 개인주의화라는 사회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01년부터 회원국의 사회지표에 관한 연구를 2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2011년 사회 결속의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지표의 항목 중 사회통합의 관련 지표를 대폭 보강하였다. 그 항목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사회적 결속력에 관한 구체적 지표가 측정되었다. 타인에 대한 신뢰,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 투표율, 수용성 등의 다섯 지표에서 사회 결속력을 측정하였다. 반사회적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순위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것은 취약한 사회적 결속력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sup>10)</sup> 이와 더불어 사회적 결속의 약화와 개인주의화를 드러내는 또 다른 지표로서 자살률과도 관련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에는 31.7명으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르켐(E. Durkheim)의 저서 『자살론(suicide)』에 따르면 사회집단 간의 자살률 차이

9) 김용섭, 『언택트』, 서울: 퍼블리온, 2020, p.12. 언택트란 용어는 2017년 『트렌드 코리아2018』에 처음 등장하였고, 기술과 산업적 진화에 따라 비대면 거래와 무인 거래가 유통에서 중요한 트렌드가 된다면서 ‘언택트 마케팅’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후 언택트라는 용어는 유통 트렌드 키워드로 자리 잡았고, 매스 미디어로 확산되면서 일상적으로 쓰는 보편적 용어가 되었다.

10) 통계청, 『2010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2011, pp.89-99, 참조,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자료(<https://www.kostat.go.kr>)(검색일: 2024.01.10).

를 사회집단 간의 통합정도 또는 응집력의 차이로 분석하고 있는데, 사회문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개인이 사회집단에 강력하게 통합되어 있을 때 사회통제 아래 개인을 두어 그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기적 행동은 금지될 수 있다. 즉 응집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 간에는 끊임없는 관념과 정서의 교환이 이루어지며, 그것은 그들을 집합적 힘에 참여하도록 이끌 것이다. 근대사회의 지나친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 통합력이 약화 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사회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기류가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류 아래에서는 죽음을 통해서라도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이기적 자살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sup>11)</sup> 사회 공동체의 자살률은 그 공동체의 사회적 통합수준에 역비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집단에 대한 통합수준이 낮고 자유로운 탐구정신이 활발한 예술가, 문인, 언론인들의 자살률이 다른 직업집단보다 높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뒤르켐은 근대사회에서 빈번한 이기적 자살의 문제는 개인화 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설명하고, 오늘날 언택트 일상은 이를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살률은 사회 결속력을 느슨하게 보여주는 지표로서 사회 곳곳의 제반 문제를 발생시키고, 역설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체성, 연대, 집합적 행동 등을 강화하기 위한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런데 코로나 19의 위기와 같은 사회문제는 비대면·비접촉의 연대가 새로운 대안이 되면서 느슨한 연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모색할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 2. 언택트 사회에서 타자의 양상

언택트 사회의 일상적 삶은 코로나 19의 위기에서 개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의 장치로서 그 유용성을 증명하였다. 지속해서 진행된 비대면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회적 타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인간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의존을 통해서 삶을 영위한다는 존재라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언택트 삶의 결과는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단절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끔 한다. 사회적 결속의 느슨함은 결국 사회의 취약한 면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연대해야 할 타자의 대상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앞서 보았듯 타자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차이와 동질성(공통의 목적)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형태적 특성을 보이며, 정

11) Durkheim,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Translated by J. A. Spaulding & G. S. Glencoe, Illinois: The Free Press, 1951(1897), p.209.

책적 대상을 통한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언택트 사회에서 사회적 타자가 발생할 수 있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택트 시대의 가장 극적인 효과는 타인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일처리가 가능하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서빙로봇과 같은 AI로봇이 등장하고, 키오스크나 테블릿 오더 등과 같은 첨단기술이 인간을 대신하여 기계가 일을 처리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저소득계층이다. 언택트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환경은 소수의 인력만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효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비용을 절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인력구조 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일자리를 잃게 된 기존의 인력은 잉여인력으로 전락하면서 경제적 빈곤 및 불평등과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고 이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무실에 출근하면 동료가 있고 상사가 있으며, 가게에 출근하면 사장님이 있고 손님이 있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는 무인점포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소통의 단절로 사회적 고립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타자는 실직의 원인으로부터 새로운 연결을 찾아야 한다. 그 연결은 느슨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인 연대로 나아가고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언택트 사회가 지속하면 디지털 디바이드(divide)를 경험하는 사람이 증가한다. 언택트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현상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는 계층에게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노년층이나,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다. 코로나 19의 위기를 겪는 동안 QR코드를 찍어야만 상점 입출입이 가능한 시기가 있었다. 당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노년층이나 장애인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되었다. 디지털 인프라가 취약한 저소득층도 언택트 디바이드를 경험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언택트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 경제적 빈곤으로 스마트 폰이 없거나 혹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 디지털 계좌가 없는 사람 등 언택트의 사회에 빠르게 적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교육을 충족할 수 없다면 디지털 디바이드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 이용이 기존의 기술에 대한 접근만이 아니라 정보수집이나, 관리, 평가, 활용, 법칙적으로 사용하는 역량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역량이 없을 때 그 누구라도 디지털 환경에서는 난민의 입장으로 추락할 수 있다.<sup>12)</sup> 이

---

12) Barbara Commbes, Generation Y: Are they Rreally digital natives or more like digital refugees?, Synergy 7(1), 2009, p.36.



것은 언택트가 새로운 사회적 단절과 고립을 양산하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타자, 그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사회적 타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셋째, 언택트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는 집단주의가 짙게 깔린 정치문화를 가졌다. 강한 유대를 바탕으로 서로 돕고 이웃 사촌과 같이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돕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그런데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와 개인주의 확산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맞물리면서 혼밥족과 나홀로 즐기는 여가문화가 창조되고 있다. 언택트 사회는 주거의 이동이 쉽기 때문에 기존의 끈끈한 연대는 축소되고, 이웃이나 지역 연대 형성을 늦춰지게 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새로운 연대의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소셜네트워크는 결속이 강한 기존의 집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sup>13)</sup> 뉴미디어의 성장은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관계를 재구조화시켰으며,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보를 보내고 받는 방법의 변화는 사회적 질서의 논리에도 변화가 생겼다.<sup>14)</sup> 그런데 코로나 19시기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는 더 절망적이게 되었다. 이들은 디지털 약자라는 중첩성도 지니며 다른 정보의 공유로부터 소외와 고립이 생겨나 돌봄노동도 받지 못하는 계층이었다. 이외에도 언택트 사회는 소수에게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속성이 있으며, 공적 생활에서 참여의 차이도 발생한다.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언택트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도 이와 함께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언택트 시대에 발생하는 사회적 타자는 실업자, 디지털 디바이드를 겪는 계층,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계층의 증가 등이 발생하게 된다. 언택트 사회는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타자의 유형은 더 분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집단의 한계를 넘어선 연대, 서로를 연결하기 쉬운 느슨한 연대에서 그 해소 점을 찾고 타자의 정치적 연대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 본다.

13) Barry Wellman, The community Qustuin: The Intimate Networks of East Yorker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84. No.5, 1979, p.1206.

14) 조슈아 메이로위츠, 김병선 옮김, 『장소감의 상실2』,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8, p.759.

### III. 느슨한 연대의 정치화 가능성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공동체로부터 단절되거나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이 짙어지는 순간 엄청난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코로나 19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러한 좌절감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이었고, 개인에게 더 집중하게 되는 사회가 되었다. 상호 간 관계 맺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소통방식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의 일상이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언택트 사회는 대면활동이 제한되어야 할 때는 효과적 대안이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소통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통의 단절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고립과 불평등은 사회적 타자를 양산하여 소외와 차별 및 배제의 사회 문제가 대두된다. 이것은 사회적 결속의 약화와 서로 연대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 역설적으로 이를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연대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연대의 필요성과 관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적 인간으로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화 속에서 삶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연대와 공동체의 설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1. 느슨한 연대의 특징

언택트는 직접적 대면을 피하고 접촉 빈도가 적다는 점에서 사회관계가 네트워크 위주의 개인주의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타인과의 접촉이 적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나와 타인의 차이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삶을 이어가게 할 뿐이다. 이런 환경은 과거의 강한 공동체의 연대감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생존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간사회 연결망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한 연대의 집단 중심주의 사회는 네트워크 중심의 개인주의 사회로 변화하게 되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끊어내는 과정에서의 주체가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며, 그 공간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러한 관계 맺는 형식에서의 연결을 ‘느슨한 연대’라고 부르고 있다.

느슨한 연대는 1970년대 마크 그라노베터(Mark Granovetter)가 강조하는 느슨한 연대의 힘(The Strength of Weak Ties)을 통해 그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끈끈하고 강력한 결속의 연대를 중요시하던 과거의 사회관계에서 의아하게 여겨지던 개인화 현상

이 현대사회를 뒤덮으면서 발생하는 연대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느슨하다’라는 뜻의 사전적 의미는 잡아맨 끈이나 줄 따위가 늘어져 헐겁다, 마음이 풀어져 긴장감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느슨한 연대는 끈끈하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결속력이 적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직력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일상화된 사회를 보여준다. ‘따로 또 같이’라는 표현처럼 사회 구성원 간에 맺는 ‘관계’의 장점은 일부 취하면서 그러한 연결이 주는 부담과 복잡함의 단점을 줄어내는 태도에서 ‘느슨한 연대’가 만들어졌다. 강인한 공동체의 귀속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느슨한 연대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동체를 수용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집단주의적 관점에서는 다소 이기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지만, 개인주의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sup>15)</sup>

<표 1> 집단중심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 사회로의 변화

집단 중심주의 사회	네트워크 개인주의 사회
집단 간, 집단 내 교류	개인 간 교류
집단 교류	일대일 교류
이웃 공동체	다양한 공동체
지역 내 연결관계	지역 및 원거리 연결 관계
지역 공동체	친구들간 연결 네트워크
비자발적인 연결 관계(가족, 친지)	자발적인 친구 관계
강한 사회적 통제	약한 사회적 통제/자유로운 네트워크 전이
집단 내 다양한 사회적 자본 추구	전문화된 사회 자본 다양성 추구
타집단과의 분명한 경계	타 네트워크와 융합되는 관계
공공영역	개인영역
게시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출처: 이호영, “SNS의 이용과 개인의 사회관계 변화 분석: SNS 연결관계를 통한 신뢰 사회구현에 대한 전망”,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2013, p.41.

마크 그라노베터는 50년 후의 사회적 관계를 정확히 진단하였다. 디지털 기술 발전, 저출산, 1인가구의 증가, 지방 도시의 소멸 등은 더욱 느슨한 연대를 구축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연결을 통해서 사회적 결속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마크 그라노베터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결과를 내리고 있다.<sup>16)</sup>

15) 김용섭, 『라이프 트렌드 2020: 느슨한 연대』, 서울: 부키, 2019, p.27.

“인간은 가까운 친구처럼 결속이 높은 ‘강한 연대’의 인간관계와 그냥 아는 사람과 같이 결속 정도가 낮은 ‘느슨한 연대’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 마크 그라노베터는 1주일에 2번 정도 만나는 사람(자주 보는 사람-oftencontacts-)은 ‘강한 연결’로, 1년에 2번 정도 만나는 사람(가끔 보는 사람-occasional contacts-)과 1년에 1번 이하로 만나는 사람(드물게 보는 사람-rare contacts-)을 ‘느슨한 연대’로 규정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구직에 대한 정보를 ‘자주 보는 사람’을 통해서 얻은 사람은 16.7%, ‘가끔 보는 사람’을 통해서 얻은 사람은 55.6%, ‘드물게 보는 사람’을 통해서 얻은 사람은 27.8%로 ‘느슨한 연대’가 83.4%로서 과반수를 차지한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망은 시간의 양(the amount of time), 감정의 깊이(the emotional intensity), 친밀감(the intimacy), 연결의 성격을 제공하는 상호 관계(the reciprocal services which characterize the tie)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강한 연대는 서로의 공통점이 많고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소단위의 집단으로 파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오히려 집단의 결속을 낮출 수 있다. 느슨한 연대는 이동과 혁신이 쉽다는 점에서 형태적·목적지향적 연대의 유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언택트의 사회에서는 자기 주체의 선택을 더 큰 존중으로 여긴다. 1990년대 후반 느슨한 연대는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기존의 제도나 협력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참여 형식이나 대안적 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쓰여 왔다. 따라서 느슨한 연대는 다양한 사회의 타자를 엮을 수 있는 손쉬운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정치적 연대로서의 정치화의 기능을 위한 자기 선택의 주체라는 점에서 정치참여의 동기부여를 한다면 얼마든지 정치적 연대로의 변화 가능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2. 정치화의 기반으로서 느슨한 연대

느슨한 연대는 일상적으로 자신의 공동체에 관한 관심과 관련 정보의 습득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형태적·목적지향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임을 앞서 살펴 보았다. 느슨한 연대는 개인들의 활동이 정치적이지 않지만, 조직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잠재성을 지닌다고 본다. 더욱이 언택트 사회에서 네트워크 위주의 연대는 사회문제의 이슈 생산과 그 확산 속도가 빠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과급력은 아주 크다. 따라서 정치적 연대는 정치참여를 위한 것으로서 느슨한 연대가 어떻게 그 기반이 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16) Mark S. Granovetter, The Strength of Weak Tie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8, No.6 1973. 5., 1973, pp.1371-1372.

첫째, 자기 정체성의 결정과 자유로운 의사 선택으로서 느슨한 연대를 형성한다. 느슨한 연대의 환경에서는 사회관계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사회관계를 맺는 것과 끊는 것에 대한 결정권을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끈끈한 연대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 결정되었지만, 느슨한 연대는 자기 정체성 드러내는 감정과 개성을 존중받는 사회에서 발생한다. 과거의 강한 연결망 속에서는 스스로 어떤 선택을 결정하기 보다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결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컸다. 느슨한 연대에서 개인은 공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정립하려는 이슈 공중이자 온라인에서 행동하는 개인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새로운 공생의 관계로서 느슨한 연대는 다차원 선택에 이론(multi-level selection theory)에 의해서 인간이 본래적으로 협력과 연대의 생존을 잘 습득한다고 본다. 이 이론은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 즉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역학 관계가 우리의 각자도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협력을 선택할 것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sup>17)</sup> 느슨한 연대에서는 구성원에 대한 자율적이고 자발적 선택이 가능하고, 연대의 성향과 목표가 맞는 것에만 집중과 선택도 가능하지만 싫증이 나면 언제든지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느슨한 연대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이 가진 감정, 의견, 주장 등에 대해 자기 자신도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 등을 의미한다. 타인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토대로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포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sup>18)</sup> 코로나 19 팬데믹은 외부와 단절되고 직접적 대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공감적 공동체가 이루어져 상호 간 위로와 위안이 되기도 하였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타인과 소통은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주고 받는다. 폐쇄되어 같은 경험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인식을 공유함에 따라 연결되기도 한다. 인간의 욕구 단계 이론처럼 인간은 일정한 기본적 욕구가 채워지면 소속감이나 사랑 등으로 대변되는 연대의 욕구가 강하다. 공감을 소통의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온라인에서의 연결은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가진 이들을 만나게 되면 공감의 ‘좋아요’를 한번 더 눌러줌으로써 친근함을 느끼고 느슨함 중에서도 초(超)느슨한 연대가 형성되기도 한다.<sup>19)</sup> 자신만이 가지는 고유성을 통해 다른 집단과의 차별화된 자신만이 가지는 독특한 취향이나 관심거리를 강조하여 공감을 얻어내기도 한다.

17) Sober, E. and Wilson, D., *Unto Others: The Evolution and Psychology of Unselfish Behavio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pp.101~131.

18) 장원호, 정수희, “도시의 문화적 공감대로서 콘텐츠션의 인식: 콘텐츠 투어리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 학회지』 22권 2호, 한국경제지리학회, 2019, p.125.

19) 김용섭, 『라이프 트렌드 2020: 느슨한 연대』, p.94.

자신 프로필의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 없이 취향이나 관심사의 공통사항을 통한 공감으로 모여진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도 거대한 분노에서는 정치참여를 통한 정치적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적 위치에 놓이기도 한다. 예컨대 2020년 미성년자와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의 전모가 알려지면서 이들이 범죄에 사용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의 본사에 수사 협조를 요구하는 온라인 시위가 확산되었다.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탈퇴 방법이나 탈퇴 인증사진을 올리는 #해시태그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자신만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안들이 온라인 정치 공간에서 공유될 때, 타인들도 이를 공감하며 같은 경험을 겪으면서 살아간다고 자각한다. 사람들에게 느슨한 연대는 공감을 통한 연대로의 결속을 이루어낸다.

셋째, 상호 간 정보공유를 위한 느슨한 연대이다. 코로나 19 재난의 상황에서는 접촉은 줄어들고 만남은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인간은 정보 추구의 욕구가 생긴다. 또한 비대면은 외부와 단절되고 고립화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을 할애하였다. 타인과의 관계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집중이 늘어 자기 정체성이 강조된다. 느슨한 연대를 맺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체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고, 지역 소식과 친한 친구부터의 시야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상황은 최근의 지식과 유행에서도 소외되고, 노동시장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진출하려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일자리가 있다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느슨한 연대는 자기 생존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느슨한 연대는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을 손쉽게 만날 수 있고, 기존의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알지 못했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느슨한 연대에서 정보의 공유방식은 소통의 구조를 더욱 분화시키고 개인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은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소통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는 일을 넘어, 안전·정치참여·경제기회 등과 같은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 온라인에서의 연결망은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양한 국내외 정치활동에서 목격할 수 있듯이 정치적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이다.<sup>20)</sup>

---

20) 김민권, “‘권리들을 가질 권리’로서 디지털 시민권: ‘쓸모없는’ 난민에서 ‘환대하는’ 시민으로”, 『시민과 사회』 통권 40호, 2022, p.185.

#### IV. 느슨한 연대를 넘어 정치적 연대로

사회의 위기는 새로운 사회가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와 정치의 안정화는 도모할 수 없다. 코로나 19의 위기는 언택트를 이행하면서 사회 일정 집단에게는 감염의 위험을 줄여주었지만, 또 다른 집단에게는 삶의 위기에 노출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언택트 디바이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나 노동지위가 불안한 사람들에게 그 위기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전염병의 위험성을 오랜 기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세계화, 다문화, 정보화 등을 양산하는 오늘날의 사회는 우리와 타자의 접촉과 상호교섭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연대 이념의 핵심은 타자에 대한 책임의 전개와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주장이다.<sup>21)</sup> 사회의 구성원으로 타자화는 사회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타자의 정치적 연대를 위해서는 느슨한 연대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이를 정치화할 수 있을 것이다.

##### 1. 정치적 연대와 그 조건

일상적으로 연대는 행동의 주체자들이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단순하게 시공간을 함께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대는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지니거나 같은 생각과 사고를 통한 동일한 의지로서 함께 하는 것이며, 때로는 수고와 희생까지 함께 하는 것을 포괄하는 용어이다.<sup>22)</sup> 연대의 개념도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변화하고 발전되어왔는데, 그 기원은 프랑스 법에서 연대보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 프랑스 혁명을 지나 19세기에 중후반에 등장한 노동자들의 연대와 같은 형식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 결속력과 노동자 자신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핵심적 무기로서 연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라이너 출은 계급적 투쟁과 같은 의미로서 연대를 ‘공통의 책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노동자 연대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서로 아주 다를 것이며, 다른 취미나 관심사를 다양하게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노동자든 사무직 직원이든, 토박이든 이방인이든, 이주노동자든 망명 신청자든 공동체와 집단의 경계를 넘어

21) 최성환, “철학적 문제로서의 연대” 『철학탐구』 27, 2010, p.148.

22) 강수택, “사회적 연대의 유형과 시민문화”, 『사회이론』 2, 2006, p.247.

선 연대이다.<sup>23)</sup> 그러므로 오늘날의 연대는 단단하게 통합된 총체라기 보다는 다양성 속에서 느슨하게 연결된 작은 연대체를 통해서 조금씩 규모를 키우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방식으로서 새로운 연대를 모색할 수 있었야 한다. 대표적으로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ies of Maastricht)을 토대로 느슨한 연대였던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는 1995년 강력한 경제연합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으로 명칭을 바꾸고 공동의 외교안보 정책 등으로 정치적 연대를 이루게 되었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연대를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연대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 구성물 정체성의 인정과 함께 정치적 문제를 다루며, 사회구조 변화의 노력을 시민의 정치력을 중심으로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 연대의 작용이라고 설명한다.<sup>24)</sup> 정치적 연대를 이루기 위한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시민들을 정치적 행동으로 이끄는 것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올바른 민주주의는 인간이 지나치게 합리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행동을 하더라도 감정을 배제하면서 정치참여를 끌어내지는 못한다. 즉 정치적 행위는 감정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청원동의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이다.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향한 범죄에 대해 분노한 여론이 공론화되는 사건이었고, 이후 불법촬영물의 인터넷상 유포를 원천 차단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n번방 방지법), 불법촬영물 판매뿐 아니라 소시·구입·시청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시민들의 결속에서 얻은 결과로 정치적 변화를 이끌었다. 이 사건이 법의 제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사회 구성원의 정서적 동일화를 통한 참여연대를 온라인 광장에 결집할 수 있도록 한 공분이라는 감정의 정치화였다. 즉 정치적 연대는 인지적 자원과 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 요소만으로 성사되는 것이 아니며, 지식수준이 높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sup>25)</sup>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식과 이익을 정치에 활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애착에서 비롯된다.<sup>26)</sup> 이성과 감정을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다루다 보면 행위의 배후에 있는 감정들은 무시되기 마련이지만<sup>27)</sup>,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집합적 행동은 몇몇 사건에서 표출된 감정으로부터

23) 라이너 출, 앞의 책, p.22.

24) 김선옥, “정치적 연대의 조건”, 『범한철학』 제78집, 범한철학회, 2015, p.2.

25) 민희, “감정으로 정치 보기— 2016-17 촛불집회”, 『세계정치』 29권, 서울대학교 국제문제 연구소, 2018, p.210.

26) 요시다 도오루 저, 김상운 역, 『정치는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서울: 바다출판사, 2015, p.7.

27) 바바렛, 잭 저, 박형신·정수남 역, 『감정의 거시사회학: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서울: 일신



발생한다.<sup>28)</sup> 어떤 국면이나 공분이 되는 이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정서가 정치화 되어 자발적인 집합행동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감정은 표현의 수단을 넘어서 정치적 행동을 촉발하고 동원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9)</sup>

연대는 감정으로 사람들을 묶어낼 수 있지만,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결과나 과정이 없는 정치적 연대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느슨한 연대를 정치적 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합적 행동을 끌어내는 감정의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결속하기 위한 정치적 공간도 필요하다. 이러한 결속은 공동체와 집단의 한계를 넘어선 타자와의 연대가 될 것이며, 비로소 제도적·정책적인 정치 현안의 문제까지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1) 집합적 행동의 동력: 정치참여의 감정

느슨한 연대는 책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결속집단이다. 감정은 인간 누구에게나 느끼는 것으로서 파편화되기도 쉽지만, 한편으로는 결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 소셜네트워크에서 관계의 단절은 한번의 클릭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좋아요’라는 감정도 순식간에 취소를 통해서 그 감정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느슨한 연대는 생산되기보다는 소비되는 경향으로 이해되며 더 나은 가치가 생겨나게 되면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감정은 특정한 상황에 관한 반응만이 아니라 믿음과 안정 등과 같이 구성적일 수 있다. 2011년 중동혁명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셜미디어는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느슨한 유대(weak ties) 상태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유통하다가 혁명이나 시위 등의 긴박한 상태가 되면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을 응축적으로 강하게 응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sup>30)</sup> 그런데 단순히 감정의 공유를 통한 연대가 정치적 연대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젠더갈등, 아동학대, 인권침해 사례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배제 사건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감정이 공감될 때 정치화되어 집합행동으로 나아간다. 느슨한 연대를 이루는 중요한 키워드는 감정이다. 예컨대 2020년 ‘정인이 사건’은 온라인 곳곳에서 이슈가 되어 #정인아 미안해#우리가 바꿀께!라는 슬로건은 전 국민으로부터 많은 분노와 슬픔을 보여주는 공감을 형성하였다. 공감은 타인들

---

사, 2007. p.83.

28) 카스텔, 마누엘 저·김양욱 역, 『분노와 희망의 네트워크: 인터넷 사회운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5, p.11.

29) 무페, 샹탈 저·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서울: 인간사랑, 2006, p.26.

30) 조희정, “소셜미디어와 한국의 정치 과정 변화”, 『프러시안』 2012년 2월 23일(<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63351>)(검색일: 2024.08.10).

도 같은 경험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공론화되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2021년 2월 26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정인이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이러한 느슨한 연대의 공유된 감정은 정치화를 끌어내는 중요한 동기화로 작용 되었다.

2020년 3월 27일~30일 사이에 한국리서치에서 성인남녀 1000명에게 실시한 청와대 국민청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원의 참여와 지지를 이끄는 데에 감정적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음을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참여시 느끼는 감정(복수응답, 단위 %)

	참여인원	분노	불안	슬픔/고통	혐오	정의감
남녀갈등/성차별	101명	61	23	29	30	19
갑질	76명	80	6	4	22	26
종교/이념	59명	24	19	15	22	24
저출산/복지	40명	23	47	35	3	20
노동	39명	33	33	27	5	25
이웃분쟁/동물	26명	65	8	69	23	27
난민	25명	21	40	16	20	23

출처: 고려대 SSK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소-한국리서치 정기 여론조사,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인식 조사”, 고려대 정치연구소 홈페이지(kuipr.or.kr), 2020. 3.

인간은 자기 중심적 이익만을 챙기는 존재이면서, 이와 동시에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존재이기도 하다. 곧 자신의 이해타산적 상황과 관계없이도 타인의 처지나 운명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또 그것을 인식하면서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다.<sup>31)</sup> 특히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노의 감정은 집합적 행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시키는 동기가 되기도 하며, 심각한 갈등 의제보다는 일상의 의제와 결합했을 때 더 큰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데 견고한 연대가 없는 개개인이 타자의 상처에 왜 분노하는 것인가? 불평등에 대한 계급 갈등이 분노를 표출하고, 이것은 계급 적대의 감정이 근본적 원인이 되기도 하며, 계급 갈등의 정도를 분노의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32)</sup> 개인의 분노 표출과 이러한 분노가 집합적 분노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느슨함은 정치적 투

31) 이승훈, “현대 사회에서 연대적 주체의 모색”, 『사회사상과 문화』 18권 2호, 동양사회사상학회, 2015, p.218.

32) Thomas H. Marshall,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73, p.168.

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컨대 노동연대와 같은 집합적 사회운동을 통한 동원의 기제로서 감정의 연대가 발생된다. 또한 분노는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도덕적 분개의 형태로 표현된다. 즉 욕구 충족이 사회적으로 침해당한 것에 대한 감정적 이해이며, 분노의 표출은 권리를 요구하는 신호라고 주장한다.<sup>33)</sup> 도덕적 위기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이 유발되고 공동체 속의 공유된 신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분노 표출의 집합적 행동의 결과는 정치적 효능감과 결합하여 정치적 참여와 동원을 일으켜 낸다.

## 2) 온라인 공론장: 표현의 정치 공간

온라인에서 감정 표현을 통한 공감은 행위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주요한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감정의 공유는 과거 견고하게 이루어진 연대와는 달리 지속적인 집합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강력한 조직이 존재하지 않아도 집합행동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다. 즉 온라인에서 결집은 감정의 공유를 네트워크 중심의 운동으로 조직하는 ‘대표성’(representation)없어도 ‘이야기’(narration)를 통해 집합 정체성과 집단행동을 만들어 내고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하여 구심점 역할을 하는 힘을 마련할 수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느슨한 연대의 네트워크는 이야기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광장으로 이끈다.<sup>34)</sup> 예컨대 2008년 촛불시위에서의 두드러진 점은 비정치 집단의 대규모 정치참여였다. 온라인 공간에서 패션, 요리, 쇼핑, 성형수술, 스포츠, 디지털 카메라 등 일상생활세계의 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티들이었다.<sup>35)</sup> 2016년에도 촛불시위의 참여한 사람들은 소셜네트워크 라이브를 집회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정치참여를 이끌어내는 주요 동력으로 활용하였다. 집회의 참여자들은 운동을 주도하는 대표자가 없어도 집합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광장의 열기를 채워나갈 수 있다.<sup>36)</sup> 즉 온라인 네트워크는 특정 목적이나 환경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관계를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 혹은 다양한 정보를 일상에 관여할 뿐 아니라 동원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일시적 느슨한 연대와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 정치 공론장

33) 바바렛, 앞의 책, p.226, 214, 222.

34) Kevin McDonald, *From Solidarity to Fluidarity: Social Movements*, 2002, p.33.

35) 장우영·송경재, “디지털 융합시대 온라인 사회운동 양식의 변화와 의미”,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1) 시리즈』 09-10, 2009, p.64, 참조. 2008년의 촛불시위에 참여한 커뮤니티는 독자적인 집회 개최, 집회 후원금 모금, 개별의견 광고 게재 등 통해서 적극적인 집합행동을 보여주었다. 특히 2008년의 촛불시위를 주도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또래 집단 간의 소통이 청소년 참여의 기제였는데, 이는 이들이 과거 세대와는 다른 패전의 정치사회화를 겪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36) W. Lance Bennett and Alexandra Segerberg, *The Logic of Connective Action: Digital Media and the Personalization of Contentious Politic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5(5), 2012, p.3.

을 연구한 가장 대표적 인물인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공론장이 상호소통의 행위가 발생하는 일상생활의 양식을 정치적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여론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하버마스가 주장한 공론장이 언택트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그 장소를 바꾸어 정치참여와 연대를 위한 협력과 토론의 공간으로서 손쉽게 정치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온라인 공간을 통한 정치적 연대는 매우 유동적이면서 ‘액체적’인데, 특히 억압구조를 피해 결속을 형성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간보다 온라인 공간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sup>37)</sup> 따라서 온라인의 정치 공간은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의사선택을 통해서 결속하는 평등성을 지니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온라인 정치 공간은 다양한 사회적 타자 간의 연대를 모색할 수 있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결사의 공간이 된다.

언택트 사회는 손쉽게 디지털 도구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기에 편리하다.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인원도 무한대로 정할 수도 있으며, 유연한 조직 형태를 시공간을 초월하여 조직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런 역할을 하는 대표적 정치 공간의 사례이다. 산재되어 있는 공중과 시민사회를 하나로 연대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 정치적 의제 설정이나 연대를 자발적이고 수평적 상황에서 결집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정치에 참여하는 개인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정치 공간을 통해 개인은 사적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공적 개인이 되며<sup>38)</sup> 느슨한 연대로부터 정치적 연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2. 정치적 연대를 위한 이성과 합리성

연대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사회 구성원의 건전한 힘으로부터 얻어진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그 힘이 어떻게 발전되어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제시하기 위한 중요성을 지닌다. 앞서 감정의 표출을 통한 느슨한 연대의 형태가 정치적 연대로서의 기반이 되는 근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느슨한 연대가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이는 타자의 정치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주요 역할이 될 것이다. 타자가 겪는 불평등과 차이, 차별로 인한 고통은 그들 스스로가 빠르게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합리성에 기초하여 올바른 대화와 토론 등의 의사소통적 연대가 선행될 수 있을

37)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이일수 옮김, 『액체 근대』, 서울: 강, 2009, p.114.

38) 김선욱, 앞의 논문, p.311, 참조.

때 권리나 제도권의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의사소통 이론에서 합리성이란 자신의 가치나 행위를 타인에게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호주관적인 것이다.<sup>39)</sup> 상호 간 다른 사고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이성애 근거하여 대화나 토론을 통해 동의에 이를 때 상호주관적인 과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느슨한 연대를 넘어 정치적 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자와의 연대에 대한 정체성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목적 달성과 스스로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성을 기초로 해야 한다. 우리는 낯선 타자와의 함께 하는 생존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도 타자 스스로가 홀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연대는 평등한 사회에서 차이의 인정을 요구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권리나 제도권 보장의 합리성을 위한 운동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치적 연대로 나아가기 어렵다. 타자는 수적 열세와 권력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느슨한 연대로서 조직화하여 운동적 성격을 갖는다면 자기 정체성과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느슨한 연대는 정치화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이나 정책이라는 이성과 합리성이 바탕을 이룰 때 정치적 연대는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 합리성을 기초로 하여 타자의 느슨한 연대는 다자간의 연대도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협력하는 연대는 정치화의 가능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공공성을 추구할 때 완성될 수 있으며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결집을 이룰 때 느슨한 연대는 정치적 연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성은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사회 현안의 문제 해결방식은 어디까지나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할 때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뜻에 맞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 집단 행동하는 방식이 줄어드는 반면 평등성을 잃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모임이 추구되는 느슨한 연대는 정치적 연대를 이루기 위하여 공정한 협력의 가치와 합리성을 기초하여 확대되어야 한다. 공정한 협력의 가치와 합리성은 시민 개인의 노력으로만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규범과 제도·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교육이나 디지털 교육적 기반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택트 사회에서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마련될 때 타자의 정치적 연대는 온전히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가와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옹호와 같은 의제도 뉴미디어 방식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에서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타자의 연대를 전환하는 시도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느슨한 연대의 정치화는 새로운 시대의

39) 이승훈, 앞의 논문, p.210.

새로운 연대로서 그 대안이 될 것이다.

## V. 결론

코로나 19 팬더믹이 절정기였던 2020년 8월 30일정은경 중앙방역 대책본부장은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모두가 흠어지는 것이며, 사람 간 거리를 두는 것,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 이외에 지금의 유행을 통제할 방법은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흠어지는 연대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연대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핵심요소로 삼지만, 코로나 19의 위기에서는 더불어 함께할 때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음에도 연대를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홀로 지낼 수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오랜 명제처럼 개인의 삶과 생존을 우선시하는 삶의 풍토가 형성되었다고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 욕구는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느슨한 연대는 오늘날 주요한 현상인 네트워크 중심의 사회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계급과 젠더, 인종 등의 구조적 갈등과 개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의 타자를 양산하고 이에 따른 공동체는 느슨하게 유지되었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양극화, 소외를 겪는 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이고, 공동체의 느슨한 연결은 사회의 취약한 면들을 절실히 드러내었다. 그러나 정치는 분열과 갈등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정치는 구성원들이 현실에 직면하는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이상적인 사회를 창조를 위해 기능한다. 특히 코로나 19로 가속화된 언택트의 사회는 느슨해진 공동체에 새로운 연대의 시대적 요청을 제시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정치적 연대의 필요성도 더욱 극명하게 대두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의 지속 및 전염병의 위험성이 오랜 기간 노출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고립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작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물이 되었다. 또한 연대와 협동은 인간 삶의 가장 본능적인 차원인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동시에 자기 한계의 극복을 위한 계기로서 인간 존중에 기초한 이타적 연대의 출발점이기도 하다.<sup>40)</sup> 그러므로 연대는 홀로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공동체를 통해 형성되고 재난과 불안정성 등으로부터 거듭 성장

---

40) 라이너 출, 앞의 책, p.11.

한다. 그 결과 언택트는 새로운 사회적 단절과 고립의 장벽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느슨한 연대는 서로 연결되긴 했지만 끈끈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sup>41)</sup> 또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행동은 동일한 감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개인은 어느 공동체에 속한 상태는 아니다. 느슨한 연대는 끈끈하지 않지만, 공통의 관심과 감정의 공유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느슨한 협력을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느슨한 연대는 공감을 통해 결속되기 때문에 자기 몰입도는 높지만, 타자의 정치적 연대를 위해서는 국가의 법이나 정책이라는 이성과 합리성을 기초로 하여 권리나 제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타자는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타자들 간의 집합적 결사체로 연대하여 정치세력화를 구축하고 다자간의 연대를 이룩할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력을 확보하고 공적 영역으로의 자연스러운 진출을 희망할 수 있게 된다.

언택트 사회는 앞으로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자민주주의의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아래로부터의 자발성과 수평적 참여를 강조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는 것이 느슨한 연대라는 점에 이를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느슨한 연대가 정치화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느슨한 연대는 온라인을 통해 참여가 시작된 것처럼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것도 바로 참여와 실천이다. 온라인은 많은 사람이 동시접속이 가능함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있음이다. 느슨한 연대의 활성화는 소수의 정치인들에게만 점령되었던 정치적 권력에 대한 견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스마트 폰의 감시망), 다양한 일상생활이 중심이 되는 사건이나 내용들을 정치화시켜 이른바 생활의 정치화를 완성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광범위한 전자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를 어떻게 대응하고 실행하느냐의 문제이다. 예컨대,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킹의 문제, 동시접속으로 인한 서버의 다운 등이다. 또한 많은 법안과 제도적 장치들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느슨한 연대는 민주주의 이상적 실현의 가능성까지 열어주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연대이다.

41) 김용섭, 『라이프 트렌드 2020: 느슨한 연대』, p.240.

## 참고문헌

- 강수택, “사회적 연대 담론의 구조와 시민문화”, 『한국사회학』 40(6), 한국사회학회, 2006.
- \_\_\_\_\_, “사회적 연대의 유형과 시민문화”, 『사회 이론』 2, 2006.
- \_\_\_\_\_, 『연대의 억압과 시정화를 넘어』, 진주: 경상대학교출판부, 2016.
- 김민권, “‘권리들을 가질 권리’로서 디지털 시민권: ‘쓸모없는’ 난민에서 ‘환대하는’ 시민으로”, 『시민과 사회』 통권 40호, 2022.
- 김선욱, “정치적 연대의 조건”, 『범한철학』 제78집, 범한철학회, 2015.
- 김용섭, 『라이프 트렌드 2020: 느슨한 연대』, 서울: 부키, 2019.
- 김용섭, 『연컨택트』, 서울: 퍼블리온, 2020.
- 라이너 출, 최성환 옮김, 『연대란 무엇인가?』, 파주: 한울, 2008.
- 무폐, 상탈 저·이행 역, 『민주주의의 역설』, 서울: 인간사랑, 2006.
- 민희, 「감정으로 정치 보기— 2016-17 촛불집회」, 세계정치 29권, 서울대학교 국제문제 연구소, 2018.
- 바바렛, 잭 저, 박형신·정수남 역, 『감정의 거시사회학: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서울: 일신사, 2007.
- 박소람·김영기, “‘약한 연결’이 비-장소 공간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프렌차이즈 카페 공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6권 8호, 대한건축학회, 2020.
- 오프리트 회페, 박종대 역, 『정의』, 서울: 이제이북스, 2004.
- 요시다 도오루 저, 김상운 역, 『정치는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서울: 바다출판사, 2015.
- 위르겐 하버마스 지음,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출판, 2001.
- 이승훈, “현대 사회에서 연대적 주체의 모색”, 『사회사상과 문화』 18권 2호, 동양사회사상학회, 2015.
- 장우영·송경재, “디지털 융합시대 온라인 사회운동 양식의 변화와 의미”,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I) 시리즈』 09-10, 2009.
- 장원호, 정수희, “도시의 문화적 공감대로서 콘텐츠썬의 인식: 콘텐츠 투어리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 학회지』 22권 2호, 한국경제지리학회, 2019.
- 전영평,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연구 관점”, 『정부학연구』 제13권-제2호, 정부학연구회, 2007.
- 조슈아 메이로위츠, 김병선 옮김, 『장소감의 상실2』,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8.
-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이일수 옮김, 『액체 근대』, 서울: 강, 2009.
- 최성환, “철학적 문제로서의 연대”, 『철학탐구』 27, 2010.
- 카스텔, 마누엘 저·김양옥 역, 『분노와 희망의 네트워크: 인터넷 사회운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5.
- 한나 아렌트, 홍원표 역, 『혁명론』, 서울: 한길사, 2004.
- 한주희, “한국 사회에서 타자의 문제: 정치적 연대를 위하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3호,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0.
- Barry Wellman, The community Qustuin: The Intimate Networks of East Yorker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84, No.5, 1979.
- Commbes, Barbara, Generation Y: Are they Rreally digital natives or more like digital refugees?, Synergy 7(1), 2009.
- Durkheim,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Translated by J. A. Spaulding & G. S. Glencoe, Illinois: The Free Press, 1951(1897).



- Ferdinand Lassle, Arbeiterlesebuch und andere Studententexte, edited by W.schäfer, Hambrug: Rowohlt, 1972.
- Ha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 Mark S. Granovetter, The Strength of Weak Tie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8, No.6 1973. 5., 1973.
- Sober, E. and Wilson, D., Unto Others: The Evolution and Psychology of Unselfish Behavio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 1998.
- Thomas H. Marshall,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73.
- 고려대 정치연구소 홈페이지(kuipr.or.kr)(검색일: 2024.03.09).
- 노정연, “직장인 10명 중 8명 “사내 개인주의 문화 증가 느껴”, 『경향비즈』, 2018년 6월 22일(검색일자: 2024.05.14).
- 조희정, “소셜미디어와 한국의 정치 과정 변화”, 『프러시안』, 2012년 2월 23일(<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63351>)(검색일: 2024.08.10).
- 통계청, 『2010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자료(<https://www.kostat.go.kr>)(검색일: 2024.01.10).

【 Abstract 】

Politicization of Weak Ties in the era of Untact  
: Focused on Political Solidarity of the Other

Han Ju 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olitical solidarity based on weak ties in order to establish solidarity with others necessary in the untact era. In the process, we look at the “The Strength of Weak Ties” emphasized by Mark Granovetter and discuss the problems of others that are emerging as social problems. Weak ties is characterized by the emphasis on the subject of free decision-making and relationships, and a set of social empathy and common goals is made through social networks. In addition, weak ties can provide life opportunities through mutual information sharing.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weak ties requires collective motivation to move toward political solidarity, and emotions can be an important mechanism that induces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in collective action and leads to a transition from weak ties to political solidarity. To express collective emotions, a political space is required. It creates the identity of the group and collective action, and builds a central force that expresses various voices, leading political solidarity as a funct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mobilization. Finally, political solidarity is guaranteed the rights and policies of others by being given legitimacy based on the value and rationality of fair cooperation.

**Key Words** : Era of Untact, The other, Weak Ties, Political Solidarity, Sharing of Emotions, Political Space

---

• 논문투고일 : 2024년 07월 31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4년 08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11월 18일